

대기업 공채 예년 수준... '디딤돌 전형' 확대

현대차그룹 1만여명...금호 1300명

삼성·LG 상반기...효성 등 하반기 채용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극심한 경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공채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500명을 뽑은 현대차그룹은 올해는 인턴, 경력직, 공채 등을 통해 1만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대졸 공채의 경우 현대차그룹은 3월 초 현대차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 서류 접수에 들어간다. 현대차는 3월 초 서류 접수, 4월 인적성검사(HMAT), 1·2차 면접, 6월 신체검사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지난해 신입 및 경력 사원 등을 포함해 8000여명을 뽑은 데 이어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방침이다. SK그룹은 내달 초부터 대졸 공채 원서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4월 말 필기 전형을 거쳐 5~6월 계열사별 면접을 하고 6월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삼성그룹은 아직 올해 채용규모는 미정이지만 예년처럼 다음달 채용공고를 거쳐 상반기 대졸신입 채용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삼성고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사회비용 낭비를 이유로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은 올해도 지난해(1만4000여명 추정)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LG그룹도 올해 계열사별로 채용규모를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상반기 대졸공채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1년에 1만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는 효성그룹과 코오롱그룹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일정으로 채용에 나선다. 효성은 예년처럼 7~8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9~10월 전후로 최종 선발할 계획으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약 3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코오롱은 9~10월 중 공채를 실시해 100~200여명을 채용한다.

금호산업 인수 등으로 그룹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1300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작년 2000명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예정했던 투자를 올해 정

상적으로 추진해 인력 충원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디딤돌' 전형도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디딤돌이란 특정 교육을 수료한 후 대기업이나 협력업체 등에서 직접 채용을 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밝힌 기업은 대기업 11곳과 공공기관 17곳 등 총 28곳이다. 현재 대다수 기업의 채용 규모에는 고용디딤돌 인원이 포함됐다. 일반 정규직 공채 전형과 달리 유념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차로 500명을 고용디딤돌로 모집했다. 올해 총 2500명을 고용디딤돌로 선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405명을 채용, 2018년까지 총 2400명을

뽑을 계획이다. 또 고용디딤돌 1호기업인 SK그룹은 지난해 1000명을 선발했으며 2017년까지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는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122명, 한전원자력연료 15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0명, 한국마사회 32명, 한국전력공사 300명,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150명, 한국가스공사 50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0명이 고용디딤돌로 선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젊은 인재 채용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제고하려 한다"며 "업계 상황이 어렵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 '기어 VR' 공개... 삼성전자가 모델들이 28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까말루나 광장에서 운영하는 '기어 VR 스튜디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obile World Congress 2016)'에 가상현실 기기 '기어 VR'을 활용한 언팩(Unpacked) 행사와 새로운 MWC 전시 구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제공>

흡소핑 희망 기업 신청하세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2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락)는 지역 우수제품 판매지원을 위해 26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 흡소핑 방송판매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

참여기업은 광주·전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흡소핑 진출과 국내 유명 온라인, 모바일 판매상당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예정 중소기업은 전남 9개사, 광주 7개사이며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주)홍&소핑에서 지급한 임점 수수료 2200만원을 1회 지원해 참여기업은 참가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판매직접비(8%)만을 실비로 부담한다. 방송판매는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062-955-9966.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노조 찬반 투표서 52.45% 찬성

9개월간 이어져 온 금호타이어 노사 간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21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2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2738명이 투표에 참여, 1436명(52.45%)이 찬성했다.

이에 지난해 5월27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지속한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이 마무리됐다. 단체교섭 조인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정액 1186원(일당)+정률 2.

76%(평균 4.6%) 인상,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연말 임금피크제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이다.

또한 노사가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를 체결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경쟁력 제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는 올해 단협에서 세부 내용이 합의되면 연말부터 도입하기로 조율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 사회통합성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장기간의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단체교섭을 매듭지은 만큼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산구 우산동 쌍용에가 조합원 모집

분양가 3.3㎡당 700만원대...8월 착공

700만원대의 착한 공급과 탄탄한 사업 안정성을 갖춘 (가칭)광산구우산동지역주택조합의 고품격 브랜드 아파트 쌍용에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67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쌍용에가(투시도)는 지하 1층 지상 14~17층, 15개동 전용면적 84㎡, 76㎡(약 35.27평형, 31.94평형) 854가구며, 쌍용건설이 시공예정이다.

쌍용에가가 들어설 광산구 우산동 사업부지는 제2중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용도로서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토지확보도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이미 2016년 1월 지구단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동년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광주 최고의 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주 최고의 특급생활 인프라를 갖춘 상무지구가 5분 거리에 있어 최상급 생

활권 프리미엄을 자랑하며 단지 바로 앞 사업 안정성을 갖춘 (가칭)광산구우산동지역주택조합의 고품격 브랜드 아파트 쌍용에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광주~무안고속도로를 통해 광주 전지역을 20분 내에 달을 수 있고 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품평.I.C, 산월.I.C 등을 통해 시의 진출입이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의 허브로 꼽힌다.

조망권 등 친환경적 요소도 부족함이 없다. 한눈에 영산경을 누리는 빼어난 전망과 송정공원, 풍영정전 등이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과 문화관광레저단지 조성이 기대되는 어드밴스 테마파크로 한층 높아진 관광거점단지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구)삼복회관 2층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은 26일 오픈한다. 문의 062-351-5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직장인 2조원 혜택...연말정산 카드 공제 올해까지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교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4	25	33	34	38	39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26,507,625				1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82,831,444				34
3	5개 숫자일치	1,589,317				1,772
4	4개 숫자일치	50,000				87,970
5	3개 숫자일치	5,000				1,528,472

지난 18년간 1만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전담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공)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 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KBC-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 초청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초빙교수
 건국대 송순근 교수(법학박사), 영지대 부실채권(NPL) 문정수 교수, 동강대 이왕무 지적학과 교수, 김주현 세무사 前세무서장 등

특 전
 자격 취득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후 평생지도(신대생, 교대생 30% 할인)

○강의기간 : 3월~6월(선착순 70명가감)

강 의	부동산경매과정	부동산실전경매과정	부동산실전경매과정
매주(수)	매주(목)	매주(화)	
주간반 15시~17시 야간반 19시~21시	주간반 15시~18시 야간반 19시~22시	주간반 10시~12시 야간반 19시~21시	
수강료 15만원	18만원	15만원	
장 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광주 교육대 평생교육원	
연락처 062)530-3873~4 520-4243			

부동산강의 및 경매컨설팅 전문상담 010-5613-1808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차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트라이슈머 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ALGO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